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금주 금요집회(16일), 2006년 제2차 청지기 훈련 저녁 7시 30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지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새 베드로는 사탄의 미혹(마 16:23)을 받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눅 22:57-60).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직접 듣고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청지기로서 직분까지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고, 죄에 더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계 3:3), 은총의 자녀로서 심자가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눅 24:47).

그러므로 금주에 있는 청지기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합니다(히 12:17). 청지기 훈련의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행 2:38).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눈물로 준비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강력히 권면하셔서 함께 오십시오. 베드로를 바꾸신 예수님께서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바꾸실 것입니다(행 3:19). 베드로의 회개가 곧 나의 회개이어야 합니다.

*청지기 훈련 좌석 배치도 본지 7면 참조.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님은 자신의 뛰어난 탁월성을 스스로 언급하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을 높이는 말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성경에서도 겸손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문화 속에서도 자화 자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당신의 우월하심을 높여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 동시에 우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다(잠 27:1,2). 이 원칙은 의심할 바 없이 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피조물, 천사들까지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의무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눅 1:19)고 한 마디 밖에는 더 이상 자기를 높여서 증거할 것이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이시길래 자신을 가리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아 2:1 ; 계 22:16 ; 요 10:14 ; 마 12:6, 42 ; 요 8:58, 11:25 ; 계 22:13)

사실상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실 때에 그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을 높여 자신을 찬양하실 때에 더 적합하게 들려지는 것을 알게 된다. 신자들 역시 주님께 더 가까이 끌리게 됨을 고백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높여 자랑하는 내용을 썼다. 그러나 그는 계속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으시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가리켜 언급하셨을 때 그들은 그를 밝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가리켜 칭찬하셨다. 이제 이 분을 향한 우리의 대답은 의심 많은 도마의 대답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요 20:28)

이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훌륭하고 위대하심이 '어떻게 찬양되었는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거칠고 담대한 엄청난 표현의 증거이다(눅 3:15-17). 세례 요한은 무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담대히 말했다. 바리새인, 군병들, 세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정치도, 종교도, 권세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마 3:11). 엄격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겁내거나 기가 죽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감히 종의 일까지도 감당할 수 없을만큼 자신을 가리켜 하찰 것 없는 존재로 여긴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막 1:7)!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 와서 두 무릎을 꿇을 때에, 진정한 마음의 존경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두 무릎을 꿇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음을 볼 수가 있다.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존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의 타작마당이다(마 3:12). 예수님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메시야에 관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 종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구약의 메시야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고전 1:31). 이 땅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천국의 씨를 뿌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알곡을 묶으실 것이다. 사랑의 씨를 줄 것이다. 그리고 분리하실 것이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다. 물과 불의 세례로 안과 밖을 창조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옥까지도 그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불에 태우실 것이니 그의 능력으로 지옥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살후 1:7-9).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다(마 3:13-14 ; 요 1:29, 30).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였다(요 1:3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메시야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주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분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혼을 덮어 주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어 죄를 불태워 사르시고 죄인을 녹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주님이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어진 자,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고 고백한다(마 3:3).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향해 참으로 놀라운 증거를 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참으로 순수하고 정결하며 흠과 점이 없다. 피 값을 치를 수가 있다(벧전 1:19).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하여 주실 것이다. 털도, 가죽도, 살도, 피도 모두 사용이 된다(요 6:53, 55 ; 롬 6:23). 그는 흥하여야 한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신다(요 12:30, 32).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Sermon for Next Sunday

MANNA FROM HEAVEN

(31) And the house of Israel named it manna, and it was like coriander seed, white; and its taste was like wafers with honey. ... (34) As the LORD commanded Moses, so Aaron placed it before the Testimony, to be kept. (35) And the sons of Israel ate the manna forty years, until they came to an inhabited land; they ate the manna until they came to the border of the land of Canaan.

(Exodus 16:31~35)

Moses led God's chosen people, the seeds of Abraham, to the Promised Land. During their journey, God provided them with everything, including manna from heaven. Every day for forty years, God fed over two million people this special bread, so that no one went without. Not one person starved in the desert! Can you believe it? It is a true story, not a fairy tale, but an actual historical event from which we learn many things about the Lord God and ourselve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about this journey is the attitude of God's people. They actually grumbled and complained about their circumstances,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sons of Israel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in the wilderness"(Ex. 16:2). They said, "Would that we had died by the Lord's hand in the land of Egypt, when we sat by the pots of meat, when we ate bread to the full; for you have brought us out into this wilderness to kill this whole assembly with hunger"(Ex. 16:3). These people were slaves, mistreated and abused by the hands of the Egyptians for over four hundred years.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deliverance, and He freed them. He saved them from death. He brought them from the depths of failure to the heights of triumph. He dried up the Red Sea so they could cross over, and destroyed the pursuing Egyptians. He turned bitter water into sweet water. He stayed with them night and day, and gave them Moses and Aaron as leaders to hear His voice. Now, they grumble and complain, totally exaggerating their situation and doubting God's power!

The Lord God heard the Israelites' sinful voices. Moses told them, "For the Lord hears your grumblings which you grumble against Him. And what are we? Your grumblings are not against us but against the Lord"(Ex. 16:8). Instead of raining fire and hail on these ungrateful people, God said, "Behold, I will rain bread from heaven for you; and the people shall go out and gather a day's portion every day, that I may test them, whether or not they will walk in My instruction"(Ex. 16:4). God provided them manna from heaven for forty years. This manna represented His grace and mercy, which they still did not appreciate. Lamentations 3:22&23 says, "The Lord's loving kindnesses indeed never cease,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Even though you and I sin every day, wrongfully grumbling and complaining, God still gives us grace and mercy.

God lovingly gave manna to His people. "When the layer of dew evaporated, behold, on the surface of the wilderness there was a fine flake-like thing, fine as the frost on the ground. When the sons of Israel saw it, they said to one another, 'What is it?' For they did not know what it was. And Moses said to them, 'It is the bread which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Ex. 16:14&15). Just as God sent down manna from heaven to sinful people, so He sent His Son, Jesus Christ, from heaven to this earth for sinful people.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out of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out of heaven. For the bread of God is that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Jn. 6:32&33). The Israelites did not recognize God's heavenly manna, in either form.

Like the Israelites, if we are not careful to pay attention to the things of God, we too may miss, ignore, or insult His grace and mercy.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Phil. 2:5-7). If you are not humble and serious, you will see the things of God as either very little or very terrible. John 1:11&12 says,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esus is more than enough for you, "For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and grace upon grace.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were realized through Jesus Christ"(Jn. 1:16&17).

The manna from heaven that the Israelites received was pure and delicious, but it stopped after forty years. Where is it now? Revelation 2:17 tells us,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him who overcomes, to him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which no one knows but he who receives it." Right now, that manna is in heaven, waiting for you to eat when you come home. To get home, you need the real bread of life, Jesus Christ. God still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be with Him eternally, even though you grumble and complain.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ave sinners. If you fill yourself up with Him in faith, He will satisfy your every need, and you will receive manna and live eternally.

My dear friend, if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He will lead you to heaven. During your journey, He will provide you with everything you need, including His Holy Spirit. Please, let your attitude be one of appreciation. Do not grumble and complain as you travel through this life. Jesus is more than sufficient to care for you. With Him, you will lack for nothing and gain everything! Humbly accept your circumstances, whatever they may be, and glorify God in faith by recognizing and relying on His grace. Amen.

다음 주일 설교

하늘에서 내린 만나

김성관 목사

(31)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깟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4)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 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31~35)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여정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십 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은 2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니!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이 여정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출 16:2).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출 16:3).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사 백 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때 그들은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승리의 정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추적해 오는 애굽 군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그들과 함께 계셨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 주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도로 과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출 16:8). 이 배은 망덕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유황불을 비 같이 쏟아 붓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출 16:4).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 십 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22,23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악하게 원망하고 불평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출 16:14,15).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32,33).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 주신 또 다른 만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은총과 자비를 놓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5-7).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너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1,12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6,17).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만나는 순전하고 달콤했지만 사 십 년 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7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 그 만나는 여러분이 본향으로 돌아올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 놓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에게 영원히 거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나를 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은총을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여정 동안 주님은 성령을 비롯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앉아 있지 말자 (요 11:17~28)

마리아와 마르다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분이셨다. 그래서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초청했다(요 11:3). 그러나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 주님의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만 있었다(요 11:20). 한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으며 무척이나 따랐다. 그러나 막상 오빠의 죽음 앞에 실망한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 때 엘리야 선지자도 주님의 능력을 힘 입어 엄청난 일을 했다(왕상 18장).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한 여인의 협박에 그는 자살을 생각하였다(왕상 19:4).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곧바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마르다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요 11:23). 비록 극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마르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27). 우리의 인격과 경험 등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믿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를 부르신다"(요 11:28).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마르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며 생명의 주인임을 진실로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였다.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개인들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 그런데 겸손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요 10:3).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 부활 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수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바로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찬 423장).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순종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신다/ 각 개인들을 부르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요 14:27). 이 평안은 하늘에서 내린 평안이며 영원한 축복이다(요 14: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이 평안으로 인해 진실로 기뻐할 수 있다(찬 469장). 무엇보다도 주님은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롬 8:1,2,15).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면 된다(요일 1:9). 진실한 회개는 참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 옛 것이 모두 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고후 5:17).

어떻게 얻는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요 11:28,29). 개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가? 더 쇠해지기 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 하늘에서 내린 평안과 천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때 얻을 수가 있다.

앉아 있지 말자! 자신의 신앙과 경험, 인격을 자랑하며 안일하게 앉아 있지 말고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 6:40,68,69). 주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골 1:12,13).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총의 초대에 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자신의 오빠를 잃은 마리아 같은 슬픔으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실망이나 낙망하지 말자. 대신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전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찬 318장).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자. 그래서 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길 바란다. 아멘.

수요성경공부를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나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으니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한 황금어장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의 죄사하시고 구속을 위한
그 뜻을 이루시리

임마누엘, 산상수훈, 영육의 회복
친히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셨네

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왠지 아직도 나에게 고통이 있음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기에
십자가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네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나의 구주! 나의 왕!

김미심(성도, 8교구)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구약의 역사서를 관통해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았다. 모두 12권 역사서의 여러 등장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 운행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와 그가 죄악의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일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 또한 기생 라합의 집에 내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며 여호와의 군대장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살아 계신 주님께서 연출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역사의 페이지에 우리들이 동참하여 새로운 복음의 행전을 써나가야 한다는 소명감을 되새겼다. 특히 이 소명감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기 바라며 정녕 그러한 사명감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뿐이다.

채홍표(안수집사, 4교구)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돌아보며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또 어떻게 기적적인 운명을 향해 이끌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어진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단순한 순종이 구원의 중요한 매개였음을 그래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내 신앙을 되돌아보게 한 시간들이기도 했다. 보잘 것 없는 소심한 한 아이에 불과했던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한다.

정윤신(집사, 6교구)

9월에 개강될 2학기 수요 성경공부 강좌에도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 출발 전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러나 힘든 중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을 각 팀원들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셨다. 영적으로 온전히 준비시킨 주님은 현지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 가장 큰 복병이었던 찌는 무더위를 견디게 하셨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운전기사도 붙여주셨다.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이곳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영접을 한 아주머니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하였다. 한 어린이와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우셨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음료를 주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을 감사하는 한 여인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고 겉음을 인도하셨고 영혼들의 마음을 녹이셨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변화가 있음도 체험하였다. 끝까지 우리 팀과 교만한 나의 손을 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오준분(교사, 초등부)

교만한 죄인들의 선교였지만…

❖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아기와 엄마에게 안내하며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는 심장병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엄마와 병든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은 모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장경수 안수집사)

❖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렸던 현지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정말 교만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드리며, 그곳에 뿌린 복음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김종욱 집사)

❖ 학교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계획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축호 전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문경숙 집사)

11교구 선교 소감문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로 농촌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었다. 겉으로 볼 때 이곳의 환경은 평화롭고 그림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몹시 분주하고 표정이 딱딱하며 이방인들을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가 문전 박대를 하면서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참으로 난감했다. 더군다나 빈약한 현지어 실력은 더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다. 몹시도 마음이 아팠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사역 7일째 되는 날, 어느 학교 앞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어린 영혼들이 우리를 반기며 가슴에 안길 때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성령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셨고 우리들은 찬양과 율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았다. 자신을 더욱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다.

추순옥(집사, 15교구)

열매를 위한 간절한 기도!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전도한 새신자 2명이 파송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모습은 그 어떤 군사보다 든든했고 감동이었다. 3개월 간의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우리가 사역한 곳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척이나 배타적인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영적 전투를 위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역지로 나갔다. 산골 오지 마을로 들어가 축호 전도를 하였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오직 외쳤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사역 중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잠깐 와서 전도지를 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은 대단한 불교 신자이지만 학창 시절 잠시 들었던 복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은총으로 "때가 되면" 열매 맺혀 주실 것이라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나는 더욱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다.

남영순(집사, 3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5(월) ~ 6월 13일(화)	2교구 6지역	이정태
6월 5(월) ~ 6월 13일(화)	9교구 4지역	김명성
6월 5(월) ~ 6월 13일(화)	8교구 4지역	김종홍
6월 5(월) ~ 6월 13일(화)	9교구 3지역	김종규
6월 5(월) ~ 6월 15일(목)	14교구 4지역	이근호
6월 7(수) ~ 6월 15일(목)	소년부(1)	홍성욱
6월 8(목) ~ 6월 16일(금)	18교구 1지역	강태영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5월 30(화) ~ 6월 7일(수)	17교구 1지역	김연근
5월 31(수) ~ 6월 8일(목)	7교구 6지역	조증덕
5월 31(수) ~ 6월 9일(금)	4교구 12지역	류기명
5월 31(수) ~ 6월 9일(금)	18교구 6지역	이용헌
5월 31(수) ~ 6월 9일(금)	18교구 8지역	유상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저는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척 창피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인 권희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친구 권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도울 거예요.

강예은(초등부)

힘든 만큼 기도의 힘으로!

친구들을 전도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그 이유를 들자면 부모님들의 반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해서, 텔레비젼을 봐야 하니까 등의 온통 변명뿐이다.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었다.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 그래서 그토록 핑계만 대던 친구들이 변해서 교회에 나왔다. 나는 더욱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들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정다은(중등2부)

2006년 권사 수련회를 마치며

교만한 죄인들을 향한 은총의 복음!

말씀 중심의 수련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했던 저의 교만한 마음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졌습니다. "참 복음! 참 자유!"의 주제처럼 저는 진실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은총으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권사 수련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 시간 출석을 체크하지 않을 거라'는 광고를 들었을 때 적어도 출석표에서의 자유는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로 시작된 말씀은 "십자가를 자랑하리"는 말씀으로 끝나기까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 시간만 듣고 출석표를 내고 가려 했던 저의 엉큼한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수련회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은총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권사들은 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죄인이 되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한숙정(권사, 16교구)

십자가의 은총으로 채워진 죄인의 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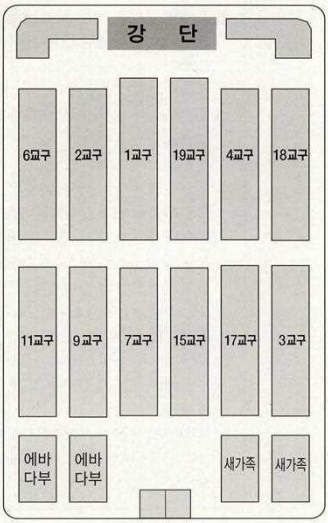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형식과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편, 자식, 지위, 금전 만능 사회 앞에서 나는 항상 연륜과 체면을 내세워 외식의 옷을 누덕 누덕 입고 있었다.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고 있었지만 이 옷을 벗어 던지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겹겹이 입어서인지 나의 의지로는 벗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말씀의 힘은 대단하였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진행된 다섯 번의 강의는 매 시간마다 나를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찌르셨다. 그리고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굳게 하였던 죄의 덩어리가 조금씩 벗겨지며 녹아지기 시작했다. 참 복음, 참 자유를 누렸지만 다시 할례를 받으려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 갈라디아 교인 같은 나의 심령은 온전히 십자가의 은총으로 채워졌다.

이틀 간의 쉽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으로 은혜받은 권사들의 환한 모습에서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기쁨이 모락모락 피어남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분초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서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리"(갈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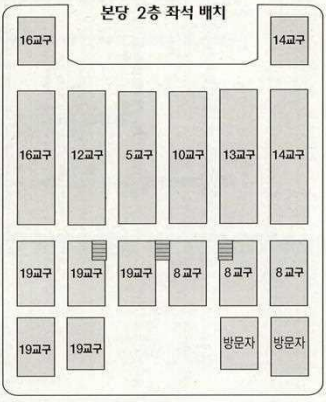
조증선(권사, 7교구)

청지기 훈련 좌석 안내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층 좌석 배치



-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홀, 나사렛홀, 본당 112호 개방)
- 탁아부 : 탁아부실(탁아부), 어린이집(부모와 3세 이하), 영아부실(부모와 5세 이하), 베다니홈(부모와 7세 이하)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 주차 차량은 먼저 출차(出車)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안내 : 장로 · 안수집사(제2교육관 지하 3 · 4층), 새가족(예치과 앞), 노약자 · 장애우 · 어린이 동반인 부모(본당 앞)

제2차 청지기 훈련을 사모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는 매일 부서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매번 주시는 말씀은 죄로 물든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직도 저의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갈 2:20).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리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울 때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은 항상 저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향한 말씀이기에 이번 2차 청지기 훈련의 말씀 또한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와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에 말씀을 향한 저의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오직 내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에 간절한 기도로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눅 22:61,62)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청지기 훈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진실한 회개와 감사와 복을 전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갈망하며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날! 6월 16일 청지기 훈련을 사모합니다.

라병순(성도, 청년2부)

죄인이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난 제1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건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단은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 것이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히 2차 청지기 훈련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베드로의 회개!"(눅 22:61,62)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뒤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유승열(집사, 15교구)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19	백승민	19	대학부	곽현구(16)
1820	오영호	2	장년1부	
1821	오영준	2	중등3부	이성훈(19)
1822	이지은	10	청년1부	이성훈(19)
1823	박대수	19	청년1부	이기건(19)
1824	김수진	19	고등부	김성경(10)
1825	반상학	19	청년1부	박충순(7)
1826	이영매	5	청년1부	김연식(6)
1827	송호성	5	고등부	김연식(6)
1828	윤소희	19	중등2부	김윤희(12)
1829	박이숙	12	중등2부	김윤희(12)
1830	김승미	12	중등2부	김윤희(12)
1831	이호준	6	청년2부	선명환(4)
1832	김지은	19	중등2부	조진희(6)
1833	펀트빔	4	장년2부	
1834	조남해	4	장년2부	
1835	유승연	19	중등3부	최연승(6)
1836	안현선	19	중등2부	임정애(5)
1837	김대하	19	청년1부	박정용(16)
1838	이 준	6	청년2부	이정은(6)
1839	장승용	19	청년1부	이설연(3)
1840	정명수	1	소망부	신동자(1)
1841	이미경	19	대학부	황혜진(3)
1842	정유진	19	대학부	윤지현(13)
1843	최윤아	19	중등2부	정진곤(5)
1844	송홍근	19	청년1부	장윤하(5)
1845	강명진	19	대학부	이성구(8)
1846	이재준	19	대학부	이성구(8)
1847	박소연	9	청년2부	정문호(9)
1848	김금자	12	장년1부	김정엽(13)
1849	손송희	19	고등부	윤혜리(14)
1850	최지예	19	대학부	김은규(3)
1851	정지훈	19	대학부	김성훈(13)
1852	나지선	19	중등2부	김하영(1)
1853	유철균	19	청년1부	곽삼조(7)
1854	이한일	19	중등2부	정소영(5)
1855	조동규	15	청년1부	김기태(15)
1856	김미정	9	장년1부	곽홍운(9)
1857	조순례	9	소망부	곽천임(9)
1858	서애경	19	청년1부	윤지원(1)
1859	김종기	17	장년3부	김종희(13)
1860	이아름	5	고등부	권 철(9)
1861	김혜주	19	청년1부	양승찬(11)
1862	박수정	19	고등부	엄예은(13)
1863	박상옥	9	장년3부	
1864	이영자	9	장년3부	
1865	양승진	19	청년1부	김경미(1)
1866	이성심	15	장년1부	천슬기(16)
1867	임지혜	19	청년1부	박애희(10)
1868	이영호	19	중등2부	최용현(1)
1869	정혜연	19	대학부	유민석(9)
1870	채지연	19	청년1부	석성애(1)
1871	고주환	13	장년1부	정태두(9)
1872	박선이	19	중등2부	이정민(9)
1873	홍석호	19	중등2부	김은혜(14)
1874	두난	19	외선부	이영희(1)
1875	엔크사나	19	외선부	자르갈(19)
1876	윤명근	7	장년1부	박대근(7)
1877	박수정	19	대학부	박성남(8)
1878	고영례	13	장년2부	임형순(10)
1879	나라	19	외선부	오홍근(13)
1880	두기	19	외선부	장길남(7)
1881	김경저	1	장년2부	김영순(1)
1882	고봉호	19	청년1부	박재경(10)
1883	이주미	19	고등부	오다현(16)
1884	김경호	15	고등부	정달영(16)
1885	김부연	19	대학부	박미혜(19)
1886	임호도문	19	외선부	
1887	이이수유	19	외선부	김윤환(5)
1888	미요탄트	19	외선부	김윤환(5)
1889	김윤태	14	장년2부	김경숙(14)
1890	신진우	19	청년1부	한동원(2)
1891	이왕희	13	예비다부	민경주(19)
1892	조우현	6	예비다부	전혜영(19)
1893	김윤수	19	대학부	배삼준(17)
1894	류지인	17	청년2부	조현숙(19)
1895	양문순	7	장년2부	
1896	허윤경	19	청년1부	박연미(7)
1897	강문경	19	고등부	이진형(16)
1898	김주년	19	고등부	최민영(6)
1899	김정자	15	장년1부	이성욱(10)
1900	최소라	19	대학부	이성욱(10)
1901	염용준	19	대학부	권지현(13)
1902	장은식	11	청년1부	장은숙(19)
1903	양세열	6	청년2부	이유리(1)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별세

1. 황희용 씨(황교석 성도의 부친, 김효분 집사의 시부, 15교구 신림5구역) / 2일 별세, 4일 장례
2. 박옥태 성도(박주삼 성도의 부친, 최선미 권찰의 시부, 1교구 충현4구역) / 4일 별세, 6일 장례

결혼

1. 진영민 군(진창술 씨, 양복회 성도의 아들, 타교회)과 염혜영 양(염동만 집사, 박태남 권사의 딸, 9교구) / 17일(토) 16:00 어린이회관 웨딩문화원 문화관1층 목련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2006년 여름 계절학교 교사강습회

일시 : 11일(오늘), 18일(다음 주일) 12:20~13:40
장소 : 제1교육관 301호 (18일/201, 301, 401호)
대상 : 제1교육위원회 소속 교사 전원 및 관심자
강의 : 주제 강의와 방향성 및 기도회

2006년도 제7차 CMTC 훈련 둘째 주

(갈릴리홀) *금년도 마지막 차수

구 분	6월 11일(오늘)
제1강(18:10~18:50)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제2강(19:00~19:40)	2005년도 선교사례 사역 경험 및 개선 사항

◆ **단기선교 팀장훈련** *금년도 마지막 차수
일 시 : 14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장 소 :** 베다니홀

2006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1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정충신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이성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훈 목사)	교육관 304호		
6월 18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김준회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최성규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 세례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6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6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6월 16일 금요집회 시에 있을 제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모든 충현의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3.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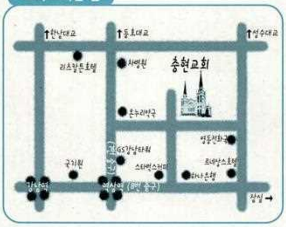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구형	최성규/이재호	이재영/장병준	이경준/송순호	이창수/정금수	김준회/강덕필	이경준/최문실

예배담당 안내 (6/14-6/18)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6/14	수요 I	이 세상 지나가고 (호산나 찬양대)	여국근	양신자	더 나은 본향 (히 11:13-16) 김성관 목사
6/14	수요 II	내 구주 예수를 (실로암 찬양대)	김성훈	김명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빌 3:1-21) 이정훈 목사
6/16	청지기훈련	연합 찬양대	정현민	장승규	베드로의 회개 (눅 22:61-62) 김성관 목사
6/18	주일 I	〈예배 전 찬양〉	황진섭	김은호	하늘에서 내린 만나 (출 16:31-35) 최종철 목사
6/18	주일 II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외 / 소프라노 장순양(임마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김준회	이 훈	하늘에서 내린 만나 (출 16:31-35) 김익환 목사
6/18	주일 III	갈보리산 위에 외 / 현악4중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정현민	한송규	하늘에서 내린 만나 (출 16:31-35) 김성관 목사
6/18	주일 IV	저 요단강 건너편에 외 / 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최성규	김영달	하늘에서 내린 만나 (출 16:31-35) 김성관 목사
6/18	주일 V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외 / 플룻 김은지(벧엘 오케스트라)	장 훈	김영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출 16:31-35) 안창덕 목사
6/18	주일찬양	브니엘 여성중창단 / 할렐루야 찬양대	이성진	이기옥	그리스도의 사람 (롬 8:1-11) 안치원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4:10 (금) 저녁 7:00-저녁 9:3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김의철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현 (당회서기), 이병학 (유지재단이사), 이 훈 (예배위원장), 남선우,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최무길 (1교구장), 이창호 (예배위원), 차신득 (새가족양육부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기획위원장), 임무천 (16교구장), 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장), 이정우 (전도위원), 김단용 (당회부서기), 한송규 (전도위원), 김영수 (동산부장), 김환기 (제3교육위원장), 원용철 (12교구장), 이형수 (전도위원장), 안동현 (예배위원), 황의만 (예배위원), 김구형 (4교구장), 최윤덕 (선교위원),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장년2부장), 이태식 (봉사위원), 정태두 (전도위원), 박홍규 (감사위원장), 권명옥 (봉사위원장), 조종환 (제1교육위원장), 배춘식 (13교구장), 김영달 (2교구장), 이실호 (관리부장), 최지윤 (10교구장), 노영한 (찬양위원장), 박철구 (전도위원), 정청길 (건축위원장), 신상수 (14교구장), 고제승 (6교구장), 강철형 (예배위원), 김영은 (전도위원), 이달옥 (새가족등록부장), 장철환 (11교구장), 김승곤 (탁아부장), 함철주 (차량안내부장), 윤석민 (할렐루야찬양대장), 정선현 (17교구장), 안석현 (3교구장), 김연근 (제2교육위원장), 김창국 (사랑부장), 김중선 (8교구장), 임창식 (임마누엘찬양대장), 김은철 (재정위원), 진학래 (18교구장), 김신국 (이멘찬양대장), 전계식 (대학부장), 김형곤 (유년부장), 장승규 (소년부장), 전은배 (중등1부장), 석영식 (초등부장), 구재완 (고등부장), 송두섭 (재정위원), 최차용 (예배위원), 신선길 (5교구장), 유상태 (유아부장), 박상대 (중등3부장), 김규석 (중등2부장), 신광철 (장년3부장)

■ 부목사

이종대 (2교구), 정현민 (선교위원회), 박인기 (에바다부), 류병희 (1교구), 김영훈 (청년1부), 여국근 (4교구), 안창덕 (5교구), 나광영 (17교구), 정진호 (11교구), 고광환 (13교구), 위건량, 김익환 (14교구), 장 훈 (3교구), 임현덕 (7교구), 이희식 (6교구), 최종철 (유년부), 하종철 (18교구), 안치원 (10교구), 정충신 (1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성진 (15교구), 조규호 (외선부), 최성규 (12교구), 이재영 (중등1부), 이경준 (대학부), 이창수 (고등부), 김준회 (8교구), 윤수일 (9교구), 황진섭 (초등부), 이정훈 (중등2부), 김태석 (중등3부), 김성훈 (교재연구)

■ 여전도사

신동자 (1교구), 윤인숙 (10교구), 한영준 (19교구), 김연식 (11교구), 홍순애 (12교구), 이옥주 (5교구), 김말자 (6교구), 안태순 (18교구), 김정연 (2교구), 강덕필 (14교구), 최문실 (7교구), 전은희 (16교구), 김영순 (8교구), 김정자 (17교구), 김정희 (15교구), 이복순A (19교구), 류진희 (9교구), 한성임 (13교구), 임태주 (4교구), 강영미 (소망부), 옥미자 (새가족양육부), 이복순B (3교구), 강호숙 (청년2부)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 선 교 사 송요한